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중국과의 관계는 많은 국가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커진 탓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객관적 논의보다 정서적, 이념적 논란이 더 승한 것이 문제이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한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말꼬리를 잡는 ‘세세’ 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우리 국민은 현재 지난 몇 년보다 이 문제를 냉정하게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일보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붕괴론(혹은 중국경제점진론)이나 중국위협론과 같은 논조가 최근까지 중국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자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고 이제 쇠퇴 혹은 심각한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이다.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국력이 증가하고 있지

중국 붕괴론과 위협론, 무엇이 문제인가

만 이를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나름의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 주장들이다. 어떤 국가에 대한 평가에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고 또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첫째 문제는 상반된 전제에 갖는 두 담론을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혼용하는 것이다. 대중 공세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위협론을 동원하고, 경쟁에서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국붕괴론을 내세우는 식이다. 쇠퇴와 붕괴로 나아가는 상대라면 왜 그와의 경쟁에 그처럼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조합은 강해지고 있는 상대를 얕잡아 보고 싸우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의 관세갈등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바 있다.

둘째 문제는 두 담론 모두 중국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중국붕괴론이 지배적이었다.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류 언론 지면을 덮어왔는데,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경제보다 중국경제를 더 걱정한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이다.

바이든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책임졌던 커트 캠펠도 4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중국을 과소평가하다(Underestimating China)’라는 글에서 이러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대중정책의 위험성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중정책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 그 역시 정책을 담당할 때는 중국붕괴론식 논조에 적지 않게 기대었다.

그의 새로운 평가에는 딥시크 충격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이 중요한 계기가 된 듯하다. 중국의 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평가가 중국위협론으로 이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여러 판본의 중국위협론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위협을 과장하곤 한다. 다른 국가의 발전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인식에 붕괴와 위협을 넘어서는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경쟁적 측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을 바로 위협으로 등치시킬 일은 아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20%인데 반해 중국시장 점유율은 2%를 넘지 못하고 있고(애플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삼성과 비슷하나 중국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을 기록했었음), 현대기아 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대수 기준)은 약 7.5%이나 중국시장 점유율은 약 1%에 불과하다. 중국 산업의 경쟁력 증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동시에 중국이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중관계에서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것이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서 균형외교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바랍일 것이다.

社說

역사적인 내란 심판일 마지막 한표까지 행사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이 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 후보들은 나름의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선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거티브 공방이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돼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민주당은 ‘내란 심판’,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 개혁신당은 ‘대안 보수’ 등을 내세우며 프레임 전쟁을 벌였다. 당선을 위해서 상대방을 특정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이야 마땅할 수 없다지만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내란 심판에 더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모두 50%를 훌쩍 넘어 역대 최고치이자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은 이런 방증이다.

반면 영남권의 사전투표율은 호남권의 절반 수준이자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보수의 텃밭에서조차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투표율까지 낮을 것이 라고 생각에선 안된다. 막판 보수측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관심사는 전국 투표율이 15대 이후 28년만에 80%를 넘을지 여부다. 호남에선 투표율 85% 이상이 민주당 후보 득표율 90% 이상이 실현될지가 관련 포인트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실현되고 투표는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국내적으로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대외적으로 관세전쟁 등 급박한 외교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실용정책으로 대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후보를 선택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무엇보다도 6·3 조기 대선이 왜 지러지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내란 심판에 마지막 한 표를 보태야 하는 이유다.

산업고도화 이끌 광양만권 미래첨단국가산단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성이 확인됐다. 전남도가 그제 발표한 국가산단 지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 평가 지표인 비용 편익 비율(B/C)이 1.055로 나왔다. B/C는 정부가 국비를 투입하는 명분으로 삼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으로 1을 넘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순천·광양 일원에 1조 2000억원을 들여 396만㎡ 규모의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 중심의 산업단지가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이차전지와 반도체, 기능성 소재 등 첨단산업 입지 수요가 많지만 입주할 산단이 부족하다.

전남도가 광양만권에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이차전지 관련 업체 등 117개 기

업이 의향을 내비쳤다. 산단 부지도 지형이 평탄하고 항만과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 여건이 우수할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팀은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3조 517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4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근 광양만권 산업벨트와 석유화학·철강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면 기존 세종·울산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용역은 장밋빛 전망을 담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시하길 바란다. 용역은 용역일 뿐 향후 과제가 더 많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을 확인한 용역을 근거로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입주 기업 유치도 만만치 않은 만큼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광양만권 미래첨단국가산단이 전남 동부권의 산업 고도화를 이끌 플랫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고



문인
광주 북구청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물류 위기 등이 중첩되며 식량 공급망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 구조에 의존하던 방식만으로는 불확실한 시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주요 곡물과 신선 식재료의 가격이 급등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유통 경로상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민생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 자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도시 내부를 들여다보면 활용되지 않는 빈 건물과 공실 상가, 노후된 공공시설 등이 방치되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 가진 유휴 공간의 재활용 가능성을 새로운 생산 방식과 결합한다면 도시문제와 농업의 미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광주 북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농업 모델을 주목하

도시와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정책

고 있다. 도시 안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구는 지난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우산동과 두암동의 유휴 공간에 ‘큐브형 스마트팜’을 시범 조성했다. 수직형 수경재배 시스템을 갖춘 이 스마트팜은 연중 작물 재배가 가능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마을 공동체와 주민이 함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도시재생의 가치를 실현했으며 농업이 지역사회 통합과 소통의 매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북구는 단순한 농업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팜 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북구 무역촉진단에 참여한 관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베트남과 미국 현지에서 총 300여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 기업이 쿠웨이트 현지 기업과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맺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제 북구는 지난 5월 수립한 ‘2025~2029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했다. 이 기본계획은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수직형 스마트팜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기술 개발과 수출 기반

구축 등 9개 추진 분야를 포함하며, 북구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도 중장기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활용한 ‘반그림’(북구 스마트팜 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R&D 테스트 베드, 교육·체험형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형 스마트팜, 어르신 돌봄형 농업모델 등 사회적 확장성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이미 고양시의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대전시의 ‘도시농업지원센터’와 같은 선도사례들과 결을 같이한다. 북구는 이들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지역 특성과 행정 자원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의 AI 산업 인프라와 연계된 도심형 스마트농업은 그 자체로 농업의 기술화, 도시재생, 공동체 회복, 청년 창업이 융합된 미래 산업의 방향을 보여준다.

도시형 스마트팜은 단지 식량을 재배하는 공간 그 이상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력성 높은 생산 체계이자, 청년에게는 혁신 창업의 기회, 어르신에게는 보람 있는 삶의 터전, 지역 공동체에는 회복과 연대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광주 북구는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도심의 유휴 공간마다 푸른 가능성을 심고, 그 뿌리가 내일의 광주를 더 풍요롭게 적서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

청춘 특특



김나경
호남대 물리치료학과 2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광주를 두고 ‘노잼 도시’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 여행 조사’의 여행 선호도를 보면 서울 5.0%, 부산 4.9%, 대구 1.7%에 비해, 광주는 0.7%로 턱없이 낮았다. 이런 데이터에 의해 광주는 ‘노잼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광주가 ‘노잼 도시’라는 말을 듣는 또 다른 이유는 즐길거리가 없어서라기 보다 광주의 매력을 담아낼 공간과 기회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광주는 오랫동안 ‘기존 상권 보호’와 ‘복합 쇼핑몰 유지’라는 갈등으로 발전이 더뎠다. 시대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데 일상에 큰 변화가 없으니 안팎에서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갖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지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 같은 평가는 다소 과장됐고 너무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한 것처럼 느껴진다. 순천에서 호남대로 진학해 생활하며 2년여동안 지켜본 광주는 나름의 색깔과 문화가 살아 있는 충분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도시다.

사람의 여가와 일상은 어느 도시든 비슷하다. 친구

광주가 ‘노잼 도시’라니

나 연인을 만나 밥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밤에는 술 한 잔을 기울인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크게 다르지 않다. 재미있는 도시인지를 오직 볼거리나 자극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도시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광주는 외지인에게 신선한 매력을 주는 도시다. 무등산의 풍경은 다른 산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고 상추 튀김이나 육전은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부드럽고 정감 있는 전라도 사투리는 광주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광주는 지역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충장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가득하다. 동명동은 감성적인 골목과 독립서점, 분위기가 있는 카페들로 가득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이다. 천만, 수완, 상무지구는 신도시 특유의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는 ‘문화수도’ 광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직접 둘러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그동안 몰랐던 광주의 또 다른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큰 기대 없이 들어갔지만 전시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가득해 놀라움 정도였다.

특히 미디어아트 전시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상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을 자극하는 느낌이었다. 나도 모르게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어느 순간 복잡했던 생각들이 잦아들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광주라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반대로 다른 지역을 여행한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여행은 생각만으로 설레고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새로운 골목, 말투 하나하나가 신기하게 다가온다.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광주 여행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다. 계획보다는 우정과 호기심에 이끌려 걷던 충장로 골목길, 검색해서 찾았던 맛집 등 모든 순간이 풋풋했고 그날의 광주는 서울처럼 커 보인다고 했다. 익숙한 일상 속에 문득 떠오를 만큼 강렬했던 그 기억은 지금도 광주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되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느냐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는 누군가에게 설레는 여행지이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따뜻한 도시가 된다. 요즘은 도시의 외형적인 재미를 기준 삼아 ‘꿀잼’인지 ‘노잼’인지 평가하곤 하지만 진정한 도시는 삶의 리듬, 사람들의 태도, 골목의 공기처럼, 깊이 있는 매력으로 다가온다.

광주는 내면의 매력을 품은 도시다. 예술과 역사, 일상의 풍경이 어우러진 골목골목에는 광주만의 이야기가 흐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된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풍경이어서 더 이상 새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애정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특별해질 수 있는 도시, 광주는 결코 ‘노잼 도시’가 아니다.

無等鼓

선거 개표방송

선거가 끝난 뒤 치킨·피자를 시켜놓고 개표 방송을 지켜 보는 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술집에서 친구·동료들과 함께 보는 단체 개표모임도 어색한 문화가 아니다.

국내 TV 선거 방송의 경우 개표 방송 경쟁은 1988년 대선 개표 방송 때부터로, KBS와 MBC 양 방송사가 공동 제작·중계 대신 각자 개표방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시작했다. 요즘 개표 방송에 많이 활용되는 예능적 요소가 도입된 건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로, 당시엔 파격적으로 연예인을 리포터 삼거나 콩트를 삽입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초창기 개표 방송의 특징이 기자들을 개표소로 보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신속·정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선거 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 자료를 방송사가 받아서 활용하게 된 2002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속도 경쟁 대신 정확성을 바탕으로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 그래픽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울해도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은 생생형 인공지능(AI) 기술, 드론, 확장현실(XR) 등을 활용한 화려한 그래픽과 각종 통계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한편, 유명 객을 투입해 지루하지 않게 유권자들의 시선을 붙잡겠다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개표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선 개표방송을 미국 역대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시청자와 최대 광고 수입을 보증하는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결정전인 ‘슈퍼볼’과 동급으로 보며 고준비한다. 박락 오마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리포터 삼거나 콩트를 삽입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초창기 개표 방송의 특징이 기자들을 개표소로 보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신속·정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선거 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 자료를 방송사가 받아서 활용하게 된 2002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속도 경쟁 대신 정확성을 바탕으로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 그래픽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울해도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은 생생형 인공지능(AI) 기술, 드론, 확장현실(XR) 등을 활용한 화려한 그래픽과 각종 통계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한편, 유명 객을 투입해 지루하지 않게 유권자들의 시선을 붙잡겠다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개표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선 개표방송을 미국 역대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시청자와 최대 광고 수입을 보증하는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결정전인 ‘슈퍼볼’과 동급으로 보며 고준비한다. 박락 오마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리포터 삼거나 콩트를 삽입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초창기 개표 방송의 특징이 기자들을 개표소로 보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신속·정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선거 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 자료를 방송사가 받아서 활용하게 된 2002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속도 경쟁 대신 정확성을 바탕으로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 그래픽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울해도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에항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문화부 220-0624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문화부 220-062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4	문화부 220-0624	사진부 220-0693		(FAX 02-773-9335)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